

## 필리핀, 정세불안속에도 농업부문 중심의 성장 지속

필리핀의 2002년도 성장률은 농업부문 성장에 힘입어 당초 기대치를 상회하는 4.6%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3사분기의 3.7%에서 4사분기에는 5.8%로 성장세가 상향세를 보였음. 금년에는 성장률이 3.8%로 낮아진 후 내년에는 수출회복이 뒷받침되는 경우 4%대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됨. 작년 농업부문은 3사분기의 부진에서 탈피해 4사분기중 엘니뇨 우려에도 불구하고 6.1%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건설제조업의 성장은 부진하였음.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미국경기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내수와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등 주변국으로의 수출은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.

### □ 수입증가세에 불구하고 수출은 계속 호조

- 수입은 3사분기까지 9.3%가 증가해 수출증가율 8.8%를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9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10월부터는 미 서부항만의 파업사태로 인해 수출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.
- 수출호조는 상반기부터 전기·전자제품의 수출회복에 힘입었으며 미 항만파업에도 불구하고 동 부문은 금년중 10%선의 수출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- 제2수출품목인 기계 통신장비의 경우에는 역내로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15%선의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석유류의 경우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
- 경상수지면에서는 3사분기까지의 흑자규모가 작년의 21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

송금액 급증에 기인함.

□ 재정수지 적자는 예상을 크게 상회

2002년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5.4%인 42억 달러(2220억 페소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초 예상치인 1,300억 페소(GDP 3.4%)를 크게 상회해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해 주었음.

- 이러한 재정적자 확대의 주 요인은 당국의 세수실적이 유류관련 세금감소 등으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친데 기인하며 정부는 조세관련 감시·감독을 강화와 지출억제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.
- 조세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관료사회의 부정, 법인세 탈루, 복잡한 조세행정, 과세제도의 불합리, 세원기반의 취약 등 종합적인 것임.

□ 테러사태 이후 반군세력의 준동이 예상

- 남부 민다노오의 한 공항에서의 폭발물 테러로 한 미국 선교사를 포함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02년 12월 17일 테러사건은 미국과 필리핀이 민다나오 지역의 회교반군에 대한 합동공격작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수일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서, 현지를 방문한 아로요 대통령은 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교반군 진압을 위한 합동 군사작전은 없을 것으로 단언하고 있음.
- 한편 이 사건의 용의단체로 민다나오섬 최대 회교반군인 모로 회교 전선(Moro Islamic Liberation Front)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 단체의 대변인은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음. 최근에는 활동이 중단되었던 공산군(New Peoples Army)이 섬전역에서 소규모의 활동을 재개해 군경에 대한 과장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.

- 앞으로 대미 관계는 미국의 국내 군사훈련개시로 점차 복잡한 국면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, 이는 미국이 1991년에 반환한 군사기지의 재현을 기도한다는 일부 시각도 있고 해서 내년도 대선 및 총선에서 야당에게 중요 선거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.

#### □ 현 아로요 대통령의 출마여부는 불투명

- 현 아로요 대통령은 내년 4월의 대통령선거에 불출마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내정치국면은 상당히 혼란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음. 아로요는 불출마 사유로 정치적 분열과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카톨릭 단체 및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출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,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 경제개혁 프로그램들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.
- 따라서 아로요 대통령이 2003년에 과세강화, 부패척결 등 주요 현안에 있어 성과를 거두거나 경제가 금년말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 재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선임연구원 김종호(3779-6674)  
E-mail: jhokim@koreaexim.go.kr